

사업회 제2기 이사회 구성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22일(월)에 사업회 2기(2004년 11월 23일 ~ 2007년 11월 22일)를 이끌 이사장으로 함세웅 현 이사장의 유임을 밝히면서 12명의 이사로 함께 임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하면 사업회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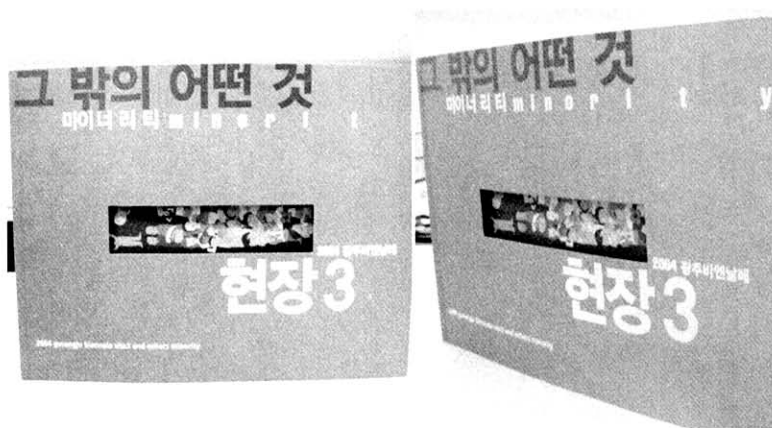
이사장은 행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행자부장관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업회는 2기 1차 이사회를 지난달 26일(금) 오후 5시에 사업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갖고 부이사장에 최영도, 송기인, 박석무, 이해학, 문영희를 상임이사에 문국주를 선출했다. 상임이사의 경우 사업회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이사장이 제청하고 행자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2기 이사는 오프라 같으며, 정동익·박영준 감사는 임기 중이라 이번 인사에서 제외되었다.

성명	나이	주요 경력
함세웅	62	(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영도	66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현) 참여연대 공동대표
송기인	66	(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석무	62	(전)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해학	59	(현)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현)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이사장
남상헌	67	(현) 70민노회 회장
효림	51	(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문국주	50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현) 링크코리아 조직위원장
이학영	52	(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위원
윤순녀	60	(현)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현)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 소장
안병욱	56	(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정현백	51	(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영희	61	(현) 한겨레신문 관리·판매담당 이사 (현) 동아투위 위원장

〈현장3 - 그 밖의 어떤 것〉 도록 제작



2004년 광주비엔날레 〈현장3 - 그 밖의 어떤 것〉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 80여 점이 수록된 도록이 출간되었다. 이 도록은 200부만 제작되었으며,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설명과 현장에 참여했던 관람자들의 모습 등이 담겨 보존 가치를 더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회 재외동포 NGO 활동가대회 열려



사업회와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동북아평화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제1회 재외동포 NGO 활동가대회 추진위원회'(대회장 오충일)는 지난달 10일(수)부터 13일(토)까지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등에서 '제1회 재외동포 NGO 활동가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최영숙 한민족유럽연대 부위원장, 허명철 중국 연변대 미래연구소장, 이수진 사할린이 산가족회 회장, 송승재 재일코리아청년연합 공동대표 등 중국과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8개국에서 활동 중인 NGO 활동가 30명이 참석해 △재외 동포들의 현실과 과제 △민족교육 활성화 문제 △재외 동포 관련 국가기구 설립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대회 첫날인 10일(수)에는 4·19기념도서관에서 대회 개막식과 함께 첫 번째 정책포럼을 가졌으며, 이후 이틀 동안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모란공원을 찾아 기일을 맞은 전태

일 열사를 추모하고 묘역을 둘러보았으며, 도라산 역과 통일전망대, 임진각 등을 탐방하는 통일기행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대회 폐막 선언을 통해 일본의 조선적 재일조선인을 배제시키고 중국·러시아 동포를 국내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킨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옹호와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국 재외공관의 비리 감시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역사적 소망인 민족통일을 위해 각국 재외동포사회를 분열시키고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역사적 상처를 남긴 현행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과거 정부기관이 조작·분열시킨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피해의 당사자인 재외 민주인사에 대한 복권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업회 홈페이지 새단장

제2기 이사회 출범과 맞추어 사업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다. 사업회의 사업과 민주주의의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웹진을 포함한 메일링 서비스 등 다

양한 사이버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지난달 말 베타테스트를 실시한 후 콘텐츠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발적 유료화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세상』은 지난 2월부터 원하시는 독자에 한해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자발적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 알찬 『희망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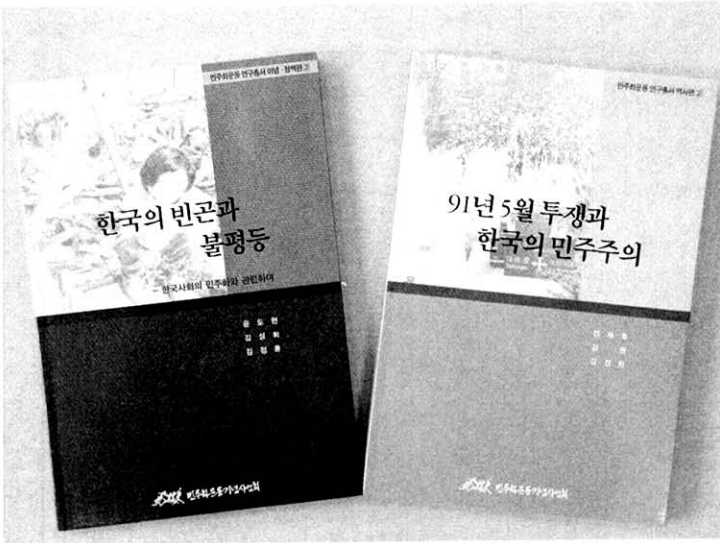
노영옥, 이규환, 안이희옥, 서기열, 현대중공업 노조, 이은영, 조성환, 소유진, 김재언, 이정열, 김태호, 이장수, 김오일, 최신숙, 김상기, 안동 가톨릭농민회, 이정구, 윤한봉, 김승일, 유승열, 김병호, 김태호, 아시자카고이치, 강범희, 안성길, 구순례, 최신숙, 강일여고 전명치, 김태호, 김영완, 안정선, 노영옥, 조명호, 김성원, 강영원, 강경단, 송병구, 최신숙, 박창현, 양현희, 한양수, 이영미, 최신숙, 김종옥, 김현, 김보미, 최신숙, 안진오, 김원식, 최신숙 (입금해주신 순서대로 기명)

[2004년 10·11월 기증자료]

기 증 자	내 용
박승원	1987년 천주교 부산교구 단식기도 서류철(성명서 등 모음)
정하성	홍지영 저 <이것이 "산업선교"다> 책자(당시 도시산업선교 비방 책자) 울산도시산업선교 관련 자료 - 기증자 활동 관련 사진 등
조연형	권운상 선생 활동관련 사진 4장, 민주화운동 보상신청 관련 서류
강석원	1976년 3월 8일 기증자가 하원에서 증언한 내용이 담긴 시디(한국의 미래와 미국정책)
전명혁	성균관대 노래패 '소리사랑' 공연실황 테이프(1985년경)
이덕문	- 전두환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언론자유 촉구 및 고문근절 성명서 찬성에 대한 서명용지 건본(1987년 2월 5일) - 인재근 여사의 김근태씨 고문폭로 오디오 테이프(1개) -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연합 성명서 및 자료 - 고 장지원 열사 약력(남편 이종두 박사 자필 작성) - 고 장지원 저 <서서 외친 말들> - 한국개헌추진운동민주본부서부지부 주최 한국개헌서명운동강연회<직선제개헌은 민주구국의 길> 성명서(1986년 3월 31일) - 1989년 노태우 시애틀 방문 규탄 성명서 등
김병태	민통련, 민자통 성명서 - 농업문제연구소 월례발표회인 수요회 회의록 - 주석균 선생 관련 자료 - 김낙중, 박헌채 선생 저서(농업문제연구소 핵심멤버) - 김병태 선생 저서 - 민족일보 등에 게재된 김병태 선생 논설

민주화운동사를 발굴·정리하고 전망을 제시한 연구총서 4종 발간

송 병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이번 연구총서는 역사 편 2종과 이념·정책 편 2종 등 총 4종이다. 역사 편 2종은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정해구 외, 12월 발간)과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전재호 외, 10월 발간), 이념·정책 편으로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송병현 외, 12월 발간),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윤도현 외, 10월 발간)이다.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커다란

분수령이 된 6월항쟁의 과정과 성격, 의의와 한계를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비추어 분석하고 정리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6월항쟁 관련 기존 연구에서 주된 연구 경향이었던 ‘운동권’의 운동론적 관점과 사회과학계의 ‘이행론적’ 관점 모두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참여와 이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

사업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발굴·정리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연구총서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일차 성과를 발간하였다.

지난해에 ‘민주화운동 문헌 해제집’ 4종(학생운동, 노동운동, 기독교사회운동, 정치운동)을 발간한 데 이어 본격적인 연구 성과를 담은 것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중 참여적 성격의 변화는 이후 한국 민주화의 진로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대중운동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6월항쟁에서 이루어진 최대민주화연합의 형성 과정과 이후의 변형주의적 보수화의 과정 그리고 최대민주화연합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6월항쟁의 진로와 전개를 꼼꼼하게 재구성했다.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91년 강경대 열사의 죽음과 분신으로 기억되는 91년 5월투쟁이 6월항쟁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 민주화의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의미와 의의를 지니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91년 5월투쟁을 재평가하는 3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들의 주장들은 신중하면서도 91년 투쟁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중층적 시사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즉 91년 투쟁은 ‘과격한 절망적 투쟁’으로 비판되어서도, ‘마지막 대규모 민중투쟁’으로 미화되어서도 곤란하다고 본다. 91년 투쟁의 희망과 절망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발전과 한계를 집약해서 보여준 중요한 계기였으며, 그 투쟁 속에 담긴 한계와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성격과 한계,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개혁 과제를 담은 3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글은 보편적 자유주의 이념의 관점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성격과 한계를 평가한다. 이 글에 의하면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를 핵심

으로 하는 ‘제한된’ 자유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이념적 성격을 주조한 것은 한국의 분단 및 역사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글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을 구한말 시기부터 6공화국까지의 지배담론을 중심으로 꼼꼼히 추적해간다.

이 글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반공주의적 성격과 ‘한계’를 각 시기의 구체적 언술 속에서 특히 이승만 이후 각 정권의 지배담론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마지막 글은 진보와 개혁의 관점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 과제를 시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논지는 한국 정치·사회적 개혁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까지 진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은 최근 현안이 되어온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민주주의의 심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한 연구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의 극복을 단순한 정책과제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담론 확장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빈곤연구의 진일보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정리하고 민주주의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담은 이번 연구 성과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 성과의 정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연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질정을 기대한다.